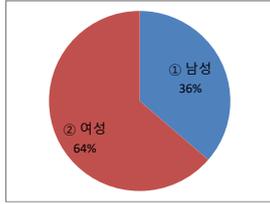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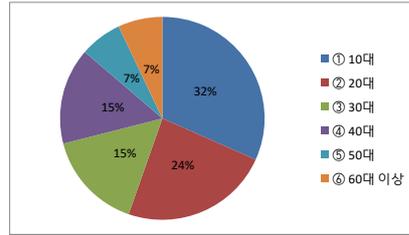


「서울과 평양의 3·1운동」 설문조사 결과 - 설문응답자 300명 (만족도 98%)

1. 성별	
① 남성	② 여성
109	19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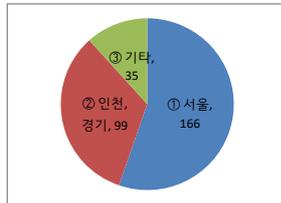
2. 연령					
① 10대	② 20대	③ 30대	④ 40대	⑤ 50대	⑥ 60대 이상
95	71	47	46	20	2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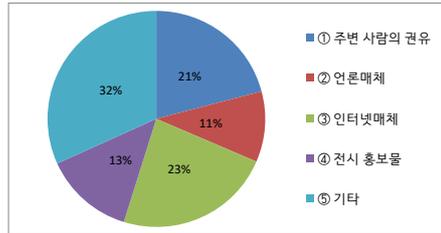
3. 직업			
① 학생	② 직장인	③ 자영업	④ 기타
139	89	13	59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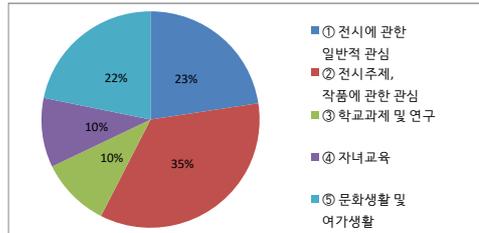
4. 지역		
① 서울	② 인천, 경기	③ 기타
166	99	3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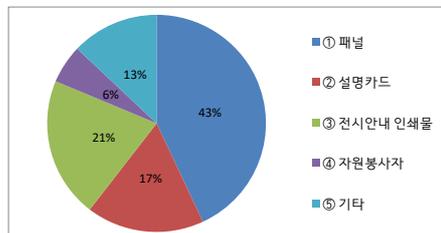
5. 전시에 대한 정보 (*복수응답 가능)				
① 주변 사람의 권유	② 언론매체	③ 인터넷매체	④ 전시 홍보물	⑤ 기타
67	34	75	43	10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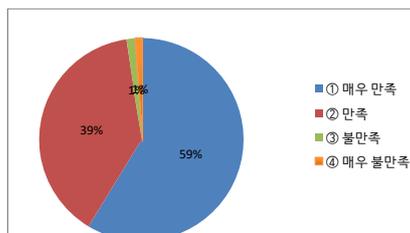
6. 전시를 보러 온 이유 (*복수응답 가능)				
① 전시에 관한 일반적 관심	② 전시주제, 작품에 관한 관심	③ 학교과제 및 연구	④ 자녀교육	⑤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
83	128	38	38	80



7. 전시이해에 도움된 방법 (*복수응답 가능)				
① 패널	② 설명카드	③ 전시안내 인쇄물	④ 자원봉사자	⑤ 기타
173	70	84	23	52



8. 전체적인 전시 만족도			
① 매우 만족	② 만족	③ 불만족	④ 매우 불만족
176	117	4	3



9. 개선해야 할 점	
전시 공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시 환경에 대한 눈에 띄는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다.</li> <li>- 일부 등영상의 상영 환경이 지나치게 개방되어 있어 여타 전시물 관람시 집중도 저하 발생</li> <li>- 통일적이지만 못한 색조합</li> <li>- 전시 관람 순서 (바닥 표시)</li> <li>- 전시장 내부를 왜 검정색(암축)으로 했나? 좀 더 생각하시죠.</li> <li>- 전시 공간 확대</li> </ul>
어둡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명 배열 부분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발생함</li> <li>- 전시장 내부 조명이 지나치게 어두움</li> <li>- 전시 공간이 좀 어두워서 글 읽기가 힘들었다. 좀 더 밝게~</li> <li>- 조명이 좀 더 밝았으면 하는 것 말고는 다 만족합니다.</li> <li>- 실내가 너무 어두워 글씨가 잘 안 보임</li> <li>-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임</li> <li>- 좀 어두워서 글자 읽기가 어려움</li> <li>- 너무 어두워요</li> <li>- 깜깜해서</li> <li>- 조금 밝으면 좋겠다.</li> <li>- 전체적으로 만족하나, 글씨가 작고 불빛이 적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</li> <li>- 눈 아픔</li> </ul>
전시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독립운동가, 희생의 역사가 아닌 투쟁의 영역에서 조망한 전시가 있었으면 좋겠다.</li> <li>- 평양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적음</li> <li>- 주제 불일치, 평양주 자료 부족, 전시양의 부족</li> <li>- 근현대사 인물에 대한 정보를 조금만 더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정보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</li> <li>- ex)최현의 변절자점 인물 정보 내용</li> <li>- 전시 제목은 '서울과 평양의 31운동'인데 '서울'과 '평양'을 전시 키워드로 삼은 점이 아쉬웠습니다. 서울-평양이란 지역에 한정하니 도쿄, 간도, 다른 지역의 역사적 의미는 퇴색하는 듯합니다. 평양 유물이 거의 드문 점도 아쉽습니다. 31운동은 한민족 역사인데 너무 남북한 수도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닌지...</li> <li>- 사진이나 자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음</li> <li>- 글이 너무 많아요</li> <li>- 시청각 자료가 많으면 좋겠다.</li> </ul>
전시 설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시 설명을 위한 자원봉사자 더 필요하다고 느낌</li> <li>- 영어 자막이나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</li> <li>- 글자가 너무 작은 것들이 있는데 멀리 놓아 있어서 보기 힘들</li> <li>-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표시가 더 많이, 자세히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.</li> <li>- 영문으로도 꼭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.</li> <li>-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.</li> <li>- 가독성이 조금 떨어진</li> <li>- 전시 흐름에 대한 리플렛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</li> <li>- 외국분들도 더 알 수 있도록 영어 번역본이나 그에 맞는 책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</li> <li>- 외국어 설명이 각 전시품마다 더 충분하면 좋겠습니다.</li> <li>- 영어 설명이 더 필요함</li> <li>- 전시설명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</li> <li>-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.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좀 더 홍보하거나 굿즈로 31운동을 기념할 만 것인 있었음 좋겠다.</li> </ul>
홍보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시실 내 시설관리자의 과도한 간섭과 통행 방해 및 관람 방해, 너무 지나치게 돌아다님 (시설관리자의 불친절)</li> <li>- 스탠프</li> <li>- 배우 재연 영상보다는 실제 당시 영상(무성영화 같은)을 보게 해주세요.</li> <li>- 전시 제목에서 왜? "독립"이란 낱말이 빠졌나? 분명히 "31독립운동"으로 표기해야 한다. 그 당시 조선인의 입장에서 "만세운동"이었고, 역사의 큰 흐름으로 볼 때는 "독립운동"이다. "독립"이란 낱말은 서재필 박사가 독립신문, 독립협회 등을 만들면서 쓰여졌다. 구한말(대한제국시대)에는 "독립"이란 낱말을 쓰지(없었) 않았다.</li> <li>- 모든 것이 좋았지만 신문보도자료 컨트롤러가 검정색이라 찾기 어려웠음(컨트롤러를 못 찾아 수차례 화면 터치)</li> </ul>

10. 인상적이었던 점	
영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상</li> <li>- 애니메이션을 통한 설명이 효과적인 것 같다.</li> <li>- 영상으로 한 걸음 더 이해할 수 있음</li> <li>- 전시물 중 영상으로 정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</li> <li>- 영상</li> <li>- 영상</li> <li>- 조명과 영상의 조화</li> <li>-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에 있는 영상들이요.</li> <li>- 영상화시킨 진실</li> <li>- 영상이 인상깊었음</li> <li>- 영상 전시가 너무 훌륭했다. 시각적 효과가 끝내줌</li> <li>- 미디어를 활용한 전시, 다양한 참여 유도</li> <li>- 영상작업들이 모두 훌륭했습니다.</li> <li>- 영상의 높은 완성도</li> <li>- 영상 자료</li> <li>- 영상매체를 활용한 설명 ex)지도</li> <li>- 경성 한 의사의 순국</li> <li>- 영상 제작을 너무 잘해주셔서 보는 내내 마음에 전율을 느꼈습니다.</li> <li>- 영상이 매우 흥미롭고 이해가 잘 되었다.</li> <li>- 영상들이 확 와닿아 너무 좋았다.</li> <li>- 영상물</li> <li>- 디지털 액자, 영상, 애니메이션이 이해를 도왔다.</li> <li>- 재현 영상, 쉽게 읽는 독립선언서를 낭독노소의 목소리로 낭독하는 영상 등 시각-청각적으로 잘 구현하여 감동이 더 컸습니다. 스토리텔링방식이 좋았다.</li> <li>- 영상, 사진</li> <li>- 한 의사의 독립운동 순국에 대한 영상과 독립운동가의 사진 포스트</li> <li>- 글로 써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도 제작해줘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.</li> <li>- 31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준 영상, 독립선언문</li> <li>- 31운동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, 독립선언문</li> <li>- 영상</li> <li>- 영상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전시에 몰입감을 높여주었습니다.</li> <li>- 영상 구성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. 경성 어느 지사의 이야기가 좋았네요.</li> <li>- 영상을 통해 본 것</li> <li>- 영상물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.</li> <li>- 영상 안내와 독립선언문(LED)</li> <li>- 시각 영상물이 전시 이해에 매우 유용했다는 점!</li> <li>- 어느 의사의 순국 영상이었.</li> <li>- 디지털미디어의 적극적 활용</li> </ul>
영상(독립운동을 기획하다 영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1운동 준비과정을 영상으로 재역하여 생생하게 느끼고 볼 수 있었던 점</li> <li>- 31운동의 처음과 과정을 알게 되서 좋았고 중영에 놓인 현색 판넬에 모임의 처음과 끝을 지도와 설명, 인물을 표시해줘서 완전 좋았어요. 이거 제작하신 분 완전 감사합니다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</li> <li>- 지도 Projection이 정말 좋았습니다.</li> <li>- 모형 지도 위에 빔을 쏘아 알려주는 것도 흥미로웠음</li> <li>- 모형과 설명과 모션이 함께 하니 너무 이해도 잘 되고 좋았습니다.</li> <li>- 영상이 재미있고 바닥에 영상을 비추준 것이 마음에 들음</li> </ul>

영상(탑골공원 내 독립선언문 영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시각적인 설명이 병행되는 스크린 부분</li> <li>- 독립선언문 전시 방법이 무척 흥미롭고 대단함, 다 읽게 되는 효과</li> <li>- 독립선언서 낭독</li> <li>- 낭독된 독립선언서(스크린에 쓰여진 글씨)</li> <li>- 낭독문 읽기</li> <li>- 독립선언서를 직접 읽어보고 체험하는 것</li> <li>- 독립선언문 낭독하는 거</li> <li>- 31운동 선언문 낭독</li> <li>- 독립선언서입니다(영상물)</li> <li>- 독립선언문 낭독</li> <li>- 관람객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31독립선언문 낭독에 소름이 짝~ 끼지더라고요!</li> <li>- 독립선언서 영상, 단어가 합쳐지며 하나의 문장(독립선언서)</li> <li>- 전시 중앙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 낭독한 목소리가 들리는 공간에서 전시에 더욱 몰입하게 되었다.</li> <li>- 직접 독립선언서를 읽을 수 있었던 점</li> <li>- 직접 선언서의 부분을 읽고 그 목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던 점 매우 인상깊었습니다.</li> <li>- 독립선언문 내용이 꼭 화면에 전시되는 부분이 소름돋았다.</li> <li>- 독립선언문을 사람들이 녹음하여 들고 화면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다. (너무 좋았다.)</li> <li>- 독립선언문 낭독과 어느 한 의사의 죽음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.</li> <li>- 독립선언문 낭독, 영상 설치 시설</li> <li>- 큰 화면에 독립문 낭독하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.</li> <li>- 당대의 기록을 오늘에 와서 낭독하고 들려준 점</li> <li>- 관객들의 목소리로 대한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, 전시장에 울려 퍼지게 한 것</li> <li>- 독립선언서로 현대어로 번역, 게시 방법의 참신함, 문장, 핵심어..</li> <li>- 독립선언서를 스크린으로 전시 낭독하는 것</li> <li>-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</li> </ul>
전시 공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탑골공원</li> <li>- 독특한 색조합(주황색+청록)</li> <li>- 작은 공간을 잘 활용하신게 느껴져서 좋았고, 중간 중간 색다른 체험공간으로 인하여 지루하지 않았음</li> <li>- 전시관의 구조를 굉장히 잘 참</li> </ul>
전시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1운동의 전개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.</li> <li>- 31운동과 독립선언문을 시청각으로 생동감있게 전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.</li> <li>- 정적인 전시물을 동적으로 만들어 31운동 준비과정부터 흥미를 잃지 않고 관람했습니다.</li> <li>-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서 이해가 잘 되었다.</li> <li>- 31운동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매우 세밀하게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.</li> <li>- 31운동의 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방면에서 전시한 점</li> <li>- 이야기의 흐름이 좋았습니다.</li> <li>- 전시를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전시물과 동선 배치한 것이 좋습니다. 도입부에서 일제 통치흐름 전개 과정 개요를 보여준 것 좋았고, 31운동이 기획될 당시 각 단체의 주요 인사와 준비 과정이 한 눈에 보이도록 표(?)연표?)로 정리한 것 좋았습니다. 더불어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전시실 중앙에 표와 함께 보이도록 영상으로 나오는 것이 좋았어요.</li> <li>- 참여형 프로그램(ex. 탑골공원에 독립문 읽는 목소리 녹음, 격문 쓰기) 있어서 좀 더 몰입할 수 있었다.</li> </ul>
전시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양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싶었는데 이 전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.</li> <li>- 자료 수집</li> <li>- 보통 서울 위주로 전시되는데, 평양까지 다뤘다는 것이 흥미로웠다.</li> <li>- 평소에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상세하게 전시한 점</li> <li>- 잘 정리된 연표</li> <li>- 외국인이 도와줬다는 점</li> <li>- 31운동에 대해 몰랐던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있었다.</li> <li>- 많은 준비가 인상적입니다</li> <li>- 감옥 실사이즈 설명</li> <li>- 불교, 천도교, 기독교, 학생들이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알려줬던 표</li> <li>- 100주년에 맞는 의미있고 전시물도 많아 알찬 전시였습니다.</li> <li>- 서울과 평양의 31운동과 관련된 외국인</li> <li>- 독립선언서 제작시의 환경과 노력했던 분들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감동스러웠습니다.</li> <li>- 독립선언문</li> <li>- 탄압하던 감옥 평수</li> <li>- 31운동이 일어나는 일련의 개요에 대해 알았던게 좋았음</li> <li>- 우리 31운동의 시작</li> <li>- 독립운동 계보도와 31 당시 일반인들의 참여와 경로를 알게 된 것</li> <li>- 독립선언문</li> <li>- 주로 일민 독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알게되어 좋았다.</li> <li>- 독립선언문 인쇄 과정</li> <li>- 31운동 전체적인 통찰(그동안은 부분적 지식 있음)</li> <li>- 독립선언문의 내용</li> </ul>
전시 설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설의 충분한 활용으로, 안내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해에 무리가 없었음</li> <li>- 설명</li> <li>-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글, 영상 등</li> <li>- 전시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.</li> <li>- 31운동의 보다 자세한 설명</li> <li>- 독립의 역사는 좀 더 이해됨</li> <li>- 독립선언문 패널</li> <li>- 전시 설명 해설사님의 역할</li> </ul>
수형카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형카드가 인상적임</li> <li>- 독립운동가 카드</li> <li>- 수형표의 전달로 무언가 가슴 속 깊이 반성과 감사함</li> <li>- 수형자 기록카드</li> <li>- 독립운동 전시관 끝의 수감자 염서가 형용할 수 없는 충격과 경건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줬음</li> <li>- 과거 수형카드 복원</li> <li>- 재포되신 분 수형카드 염서 → 일제가 치밀했구나를 느꼈다.</li> <li>- 독립운동가 염서</li> <li>- 수형카드</li> </ul>
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구나</li> <li>-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정신</li> <li>- 역사에서 기억되지 못한 한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김</li> <li>- 재미있다.</li> <li>- 몰랐던 독립운동가들</li> <li>- 후손을 위해 독립운동 하신 분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</li> <li>- 憂國心</li> <li>- 완벽한 전시였다. 유류어도 안 아까울 정도였다.</li> <li>- 감동해서 이성적으로 지금 생각못함</li> <li>- 모든 것</li> <li>- 독립선언서를 처음 읽어보았다. 그 내용에 감동했다.</li> <li>-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힘쓴 그들의 노고가 너무 안타깝고 감사했습니다.</li> <li>- 마지막 아이들의 메세지카드, 여러 장의 카드 내용이 훌륭했음</li> <li>- 깨끗한 사실과 환경</li> <li>- 유관순 열사</li> <li>- 독립,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은 대단한거다.</li> <li>- 3.1운동</li> <li>- 다-</li> <li>-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.</li> <li>- 독립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.</li> <li>- 이 전시는 올 한해를 계속해서,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.</li> <li>- 이 전시는 더 많은 홍보로 오래 해주세요.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해요.</li> <li>- ALL</li> <li>- 조직적이었던 선조들과 외국인들의 활약상에 감동</li> <li>- 대한민국 많이 사랑합니다^^</li> <li>- 더 잘 알게 되었다.</li> <li>- 우리나라 사람 해야겠다.</li> <li>- 이렇게 좋은 내용을 전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.</li> <li>- 이 전시는 상설로 해야합니다!! 감사해요!!!</li> <li>- 민족의 긍지와 일본의 잔인함</li> <li>- 모르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.</li> <li>- 3.1운동이 너무 뜻 깊고 좋았고 눈물이 납니다.</li> <li>- 중국에서 살면서 그동안 몰랐던 대한민국 우리 조상의 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알게 되어 가슴이 벅칩니다.</li> <li>- 우리나라를 위해 죽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</li> <li>-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</li> <li>- 3.1운동인들이 엄청 괴로웠다는 걸 알았다.</li> <li>- 3.1운동과 만세운동</li> <li>- 패널도 만들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.</li> <li>- 재밌고 역사가 깊은 거 같았다.</li> <li>- 그림 그리기</li> <li>- 3.1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알게되니 더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.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노력으로 이뤄졌음을 느낌</li> <li>-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한 것</li> <li>- 대한민국이 독립을 위해 이리어나 어려움을 겪어온 것</li> <li>- 학교에서 자세히 배우지 못했던 점을 전시로 통해 역사 인식과 반성, 바로 고칠 수 있었다.</li> <li>- 3.1운동에 사람이 죽어서 슬펐던 점</li> <li>- 재미있음</li> </ul>
----	---

11. 자료 기획되었으면 하는 전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제의 만행 중 가장 혹독했던 부분을 입체적으로 모형 전시</li> <li>-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</li> <li>- 근현대사, 구한말</li> <li>- 4.19 관련 전시</li> <li>- 음식역사(궁중음식, 민간에서 먹었던 음식)</li> <li>- 독립운동가 특별전</li> <li>- 정양용 특별전</li> <li>- 한국의 독재자(박정희)</li> <li>- 진일파 행적들</li> <li>-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</li> <li>- 여성독립운동가 기획전시</li> <li>- 5.18</li> <li>- 독립운동</li> <li>- 6.10 만세운동</li> <li>- 3.1운동 100주년인 만큼 독립에 관한 전시 많이 해주세요.</li> <li>- 제주 4.3사건 및 여수순천 민중항쟁에 대하여</li> <li>- 반일혐오감정만 가지게 되는 전시가 있다면 일본에 대해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전시도...</li> <li>- 독립을 돕고 한국을 사랑한 일본인에 대한 전시로 밸런스를 잡아 주세요. 똑같이 혐오하지 맙시다.</li> <li>- 서울의 서민음식 소개</li> <li>- 시대 흐름 및 일상을 보여주는 모습을 담기</li> <li>- 6.25전쟁</li> <li>-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역에서 일어난 일</li> <li>- ANYTHING IS OKAY</li> <li>- 무엇이든 역사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.</li> <li>- 서울의 한류 관광지</li> <li>- 여성독립운동가 전시</li> <li>- 위 의 영상(경성 한 의사의 순국)처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개인의 이야기를 알고 싶다.</li> <li>- 태극기</li> <li>- 한국 전통 놀이, 옷, 생활 등에 대한 연구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-	--

- 우리나라 악기&음악의 역사
- 한국여성사를 다루는 전시가 있기를 희망합니다.
- 독립운동 주제,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, 우리가 잘 몰랐던 인물 재조명 등
- 1910-45 기간의 사진 등 수집 (한국인들이 보관해온 유품 및 전시)
- 비슷한 맥락으로 민주화운동 관련하여 보고싶다.
- 여수, 순천 사태 관련
- 옛날 사람들의 복장
- 서울의 역사
-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좀 더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음
- 대한민국 임시정부원 전시 부탁드립니다.
- 서울에 있던 오래된 학교들의 변화 (일제 때부터 현재까지)
- 여성 특집
- 여성 독립유공자에 관한 전시들도 계획되었으면 합니다.
- 연계되는 과거사를 계속 기획 전시 했으면 한다.
- 순국열사들의 행적도 좋지만 반대로 전인공노할 친일파들의 행적에 대하여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- 응답하라1988시리즈용
- 기독교 역사에 관해서(우리나라)
- 친일파 계보도? 매국행위 후에도 호위호식 잘 사는 것에 대한 경종?
- 조선 후기 여성사
- 내년에도 3·1운동 기획 있으면 좋겠다.
- 독립에 여성들의 참여를 잘 드러내면 좋겠습니다.
- 아관파천 이전의 상황, 순현황귀비의 활동(어떻게 아관파천을 성공시켰는지)
- 대한민국 임시정부
- 여성 독립운동 관련 전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
- 옛날 무기에 대한 전시
- 가야의 역사
- 역사 관련 전시
- 5-18, 광주 학생 항일운동
-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라면 모든 좋습니다.